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제테마(216080)

제약/생명과학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남동우 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IR협회

제테마(216080)

K-뷰티 토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전문기업

기업정보(2021/03/02 기준)

대표자	김재영
설립일자	2009년 07월 17일
상장일자	2019년 11월 14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제조업
주요제품	히알루론산 필러, 보툴리눔 독신, 리프팅실 등

시세정보(2021/03/02 기준)

현재가	20,00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3,513억원
발행주식수	17,566,359주
52주 최고가	36,850원
52주 최저가	4,200원
외국인지분율	0.90%
주요주주	
김재영 외 17인	28.5%

■ 성형용 바이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문기업

제테마(이하 동사)는 안면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히알루론산 필러와 보툴리눔 독소를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 조직 봉합 및 안면 고정 리프팅실, 피부과용 전문 레이저 의료기기 등을 연구개발 및 제조하는 기업이다. 동사는 개발총괄 산하 기업부설연구소와 개발부서를 두고, 하위 조직으로 5개팀(연구기획, 고분자, 바이오, 개발, 임상)로 세분화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매출액의 35% 이상을 투자하여 제품의 성능 향상 및 포트폴리오 강화에 힘쓰고 있다.

■ 안면에서 바디성형 필러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력 보유

2020년 하나금융투자의 미용성형 보고서에 따르면, 미용성형 시장에서 히알루론산 필러는 안면성형 필러에서 바디성형 필러로 적용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바디필러 중 가슴 부분은 2019년 3분기에 예비임상 프로토콜을 제출하였으며, 2023년 출시를 목표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안면에 주입되는 필러 양이 약 3cc인 반면, 바디필러는 약 200cc가 주입되어 제품의 안정성과 몰딩감이 더욱 중요하게 강조되며, 동사는 낮은 가교율(MoD)로 안정성이 높고 우수한 몰딩감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보툴리눔 독신의 오리지널 균주 및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공장 확보

동사는 영국공중보건원으로부터 보툴리눔 독신의 오리지널 균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미용/성형 시장에 적용되는 Type A 뿐만 아니라, 치료용 시장에 적용되는 Type B, E 균주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특수 감압건조 방식으로 원재료부터 제품 생산까지 1일 1 Batch 생산이 가능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공장(연간 400만 vial)을 보유하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별도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81.7	-35.3	-40.0	-49.0	-55.8	-68.3	-122.4	-29.1	400.8	-524	350	-	0.0
2018	112.1	37.2	-45.5	-40.6	-157.5	-140.5	2,507.1	-44.8	-1,116.7	-1,327	-408	-	0.0
2019	133.0	18.7	-107.3	-80.7	-147.2	-110.7	-101.9	-25.9	83.5	-1,077	2,053	-	5.0

기업경쟁력

연구개발 역량 및 우수한 생산능력

- 제품 경쟁력 강화 위해 최근 3개년 매출액 기준 20% 이상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 오리지널 균주 확보(Type A, B, E)
→ 치료제 시장으로 확대 가능
- 국내 최대 규모급 생산공장(연간 400만 Vial) 보유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 및 유통망 구축

- 성형용 바이오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포트폴리오 구축: 히알루론산 필러, 보툴리눔 독신, 리프팅실 등
- 유럽, 중/남미, 동남아 등 해외 16개국에 제품 수출
- 주요 권역별 파트너십을 통한 Two-track 전략 구축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핵심기술

- 독자적인 Cross-Linked HA 기술
- 낮은 가교율(MoD)로 안정성 및 우수한 몰딩감 보유
- 특수 감압건조 방법 개발
- 건조시간 대폭 단축, 독소 단백질 변성 최소화
- 4세대 리프팅실(Dual Action 기술)
- 높은 인장강도와 내구성 및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

주요제품

히알루론산 필러



보툴리눔 독신



리프팅실



레이저수술기



매출실적

- 2020년 3분기(누적) 매출유형별 비중 (단위: 억 원, %)

구분		매출액	비중
제품	히알루론산 필러, 보툴리눔 독신 등	102.8	87.4
상품	기타	11.0	9.3
기타	임대료/수수료 수입	3.9	3.3
총 합계		117.7	100.0

시장경쟁력

글로벌 미용성형 시장규모(Fortune Business Insights)

연도	시장규모	성장률
2018년	506.7억 달러	연평균 3.6% ▲
2026년(E)	672.4억 달러	

글로벌 필러 시장규모(Fortune Business Insights)

연도	시장규모	성장률
2019년	37.3억 달러	연평균 9.3% ▲
2026년(E)	69.5억 달러	

글로벌 보툴리눔 독신 시장규모(GmInsights)

연도	시장규모	성장률
2019년	49.0억 달러	연평균 8.9% ▲
2026년(E)	86.0억 달러	

레이저 미용성형 시장동향

- 인구의 고령화, 남성 수요층의 확대, 적용 부위 확대 및 선호도층의 증가로 성장세 유지

최근 변동사항

중국과 5,500억 원 규모의 공급·라이선싱 계약 체결

- 보툴리눔 독신 중국 현지 임상 시작 2024년 허가 취득 목표 및 5,500억 원 규모의 제품 공급 (2020.08)

필러 등 생산설비를 위해 74억 원 규모 투자 결정

- 연간 300만 개 필러 추가 생산 및 올해 9월까지 완공 목표 (2020.11)

더 독신주 100U, 수출용 품목허가 취득

- 더 독신주 100U, 수출용 품목허가 취득(2020.06)
- 브라질 FUNSHINE Inc과 1,105억 원 공급계약 체결

I. 기업현황

성형용 바이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문기업

동사는 히알루론산 필러, 보툴리눔 독신, 리프팅실, 의료장비 등의 다양한 사업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내 유일 Type A, B, E 균주를 확보하여 치료제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할 기반도 구축하고 있다.

■ 기업개요 및 주요주주

동사는 2009년 7월에 설립되어 안면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 필러와 보툴리눔 독신(Botulinum toxin)를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Biopharmaceuticals), 조직 봉합 및 안면 고정 리프팅실 등을 주력 품목으로 개발 및 생산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테슬라 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동사는 키토산을 응용한 DDS(Drug Delivery System)를 개발하는 바이오 연구기업으로 출발하였으며, 2010년에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엑시머 레이저를 개발하였다. 2014년 휴먼메디칼 합병하였고, 2015년 히알루론산 필러 전용 공장을 용인에 준공하며, 엑시머 레이저 외에 히알루론산 필러 제조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2018년 11월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공인한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히알루론산 필러와 보툴리눔 독신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영국공중보건원(Public Health England, PHE)로부터 미용 및 성형 시장에 적용되는 Type A 균주를 확보한 것에 이어, 치료용 시장에 적합한 Type B, Type E 균주도 확보하여 성형/미용뿐만 아니라 치료제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할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멀티 듀얼액션 기술이 적용된 리프팅실을 개발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유럽, 중/남미, 동남아 등 해외 16개국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필러와 시너지를 발휘하며 안면 시장뿐만 아니라 바디 시장으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공시자료를 기반한 네이버금융(2020.02.18.)에 따르면, 동사의 최대주주는 김재영 대표이사로 24.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재영 대표이사는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학사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의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의공학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동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1] 동사의 조직도



[표 1] 주요주주

주주명	최대주주와 관계	지분율(%)
김재영	본인	24.10
장금란	특수관계인	1.11
김범준	특수관계인	0.33
김형석 외 14인	임원 외	2.96
기타 주주	-	71.50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출처: 네이버금융(2021.02), NICE디앤비 재구성

■ 주 사업 영역별 제품 구성과 제품별 특징

동사의 주력 사업은 히알루론산 필러이며, 주요 제품은 e.p.t.q. S100, S300, S500, eve S, 리도카인 S50, S100 등으로 성인의 안면부 주름의 일시적 개선에 사용된다. 또한, 보툴리눔 독신의 주요제품은 주름 개선, 근육 경직 및 안검 경력 치료에 사용되는 더 독신주 100U이며, 리프팅실의 주요 제품은 멀티 듀얼액션 기술이 적용된 Epiticon이다. 레이저수술기의 주요제품은 Revolix Duo로, 주로 상처 치유백반증, 건선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사는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여 뷰티 관련 토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표 2] 동사의 사업 영역별 주요 제품과 제품별 특징

사업 영역	주요 제품명 및 특징	
히알루론산 필러	e.p.t.q. S100/S300/500/eve S, e.p.t.q 리도카인 S50/S100/S300/S500	
	○ 적응증 : 성인의 안면부 주름의 일시적 개선 ○ 부위 : Subcutaneous / supraperiosteal areas ○ 용량 : 0.5ml, 1.0ml ○ 인증 : KFDA, CE	
보툴리눔 독신	더 독신주 100U	
	○ 적응증 : 주름 개선, 근육 경직 치료, 안검 경력 치료 ○ 수출용 품목허가 취득(2020.06)	
리프팅실	Epiticon	
	○ 폴리디옥사논 봉합사, 멸균주사침 및 범용 카테터 캐놀라로 구성된 제품으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 ○ 길이(코그부) : 60mm, 92mm (2종류) ○ 캐놀라 타입 : L Type, W Type	
의료장비 (레이저수술기)	Revolix Duo	
	○ 용도 : 조직의 기화, 절제 및 결석 파쇄 ○ 장점 : 미세침습적, 빠른 회복 가능(적은 출혈) ○ 빔 전달 방식 : Flexiable Silica Fiber ○ 장비 내 쿨링 장치 장착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 판매 조직, 방법 및 방식

동사는 국내의 경우, 서울 3개팀, 경기/인천 1개팀, 충청/전라/경상/제주/강원을 1개팀으로 분할하여 담당하고, 직접 판매로 운영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수출품목허가로 브라질 미용 유통업체(스킨스토어), 중국 주요 제약사(화동닝보 등)와 L/O 체결 및 수출을 개시하고, 주요 권역 별 파트너십을 통한 Two-track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해외 학회 등에 참가하여 우수성을 홍보하고, KFDA 승인과 유럽 CE 승인 등으로 제품의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다.

[표 3] 해외 시장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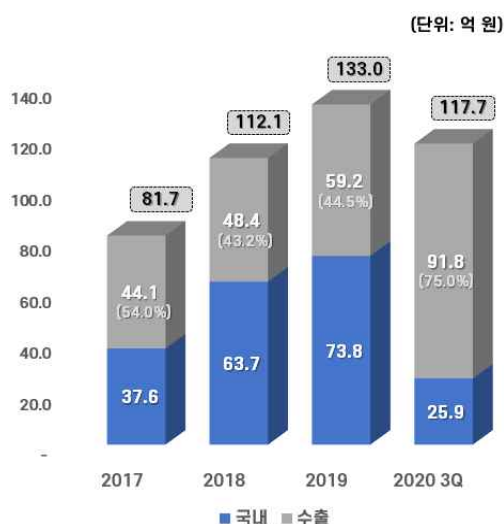
지역	현황 및 전략	주요 국가별 허가 예상
러시아	카자흐스탄 ODM 현지 허가 취득, 향후 우크라이나 ODM 추진	러시아(2020년 3분기)
유럽	영국 내 파트너사와 3년 독점 계약 체결	유럽 전역 (2020년 2분기 CE인증)
중남미	브라질, 멕시코에 필러 유통허가 취득	브라질(2020년 2분기, 허가완료)
중동	터키,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 판매 진행 중	이란(2020년 4분기)
아시아	베트남 시장에서 수입 및 유통허가 취득	태국(2021년)
중화권	보툴리눔 독신 계약 파트너사와 제휴 영업 검토	중국(2023년)

*출처: 동사 IR자료, NICE디앤비 재구성

■ 3개년 매출액 추이 및 매출구성비

동사의 매출은 제품매출(필러, 독신 등)과 상품매출(기타 등), 기타(임대료 및 수수료 수입)로 나누어지며, 3개년 간 전체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매출액은 11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2%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133.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8.7% 증가한 실적을 보이며, 지속적인 외형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동사의 수출 비중은 2017년 54.0%, 2018년 43.5%, 2019년 44.5%로 기록되었으나, 2020년 3분기 기준 75.0%로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2] 동사의 최근 3개년 매출구성비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NICE디앤비 재구성

[그림 3] 동사의 최근 3개년 내수/수출 구성비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NICE디앤비 재구성

II. 시장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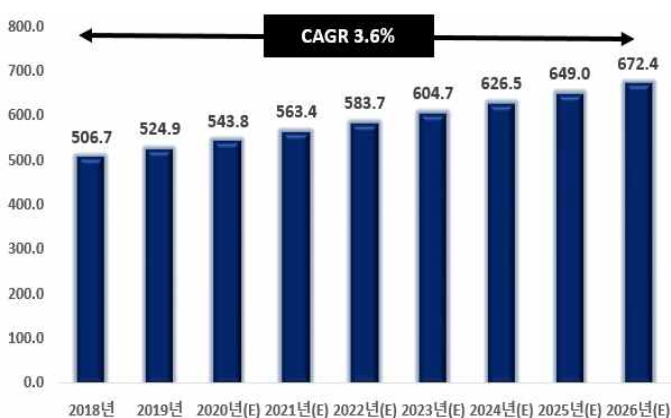
미용성형 시장, 적용 부위 확대 및 남성층의 관심 증가로 성장세 유지

미용성형 시장은 적용 부위 확대, 남성층의 관심 증가 등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용성형 시장 확대에 힘입어 히알루론산 필러 시장도 역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 비침습, 최소침습 기술 및 남성층의 관심 증가로 미용성형 시장은 성장세

의료미용(Medical Aesthetic)은 보툴리눔 독신, 히알루론산 필러 및 리프팅실로 대표되는 최소침습 혹은 비침습적 방식의 기술을 비롯하여 지방 흡입, 가슴확대 그리고 외과적 절개가 필요한 성형수술과 함께 빠띠(Petit)성형이라 불리며, 근래에 보편화되고 있는 신규 기술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그림 4] 글로벌 미용성형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출처: Fortune Business Insights(2020), NICE디앤비 재구성

삼성증권 2019년 헬스케어 분석에 따르면, 노화방지를 위한 미용성형이 기존에는 40-50대 여성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기술 가격의 하락, SNS로 확산 중인 루키즘 등으로 최근에는 20-30대 여성들이 기술을 받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남성들도 외모관리, 노화방지에 대해 과거 대비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국제미용성형외과학회(ISAPS)에 따르면, 2018년 미용성형 수술·기술 건수는 총 2,327만 건으로 전년 대비 5.4%, 2014년 대비 20.2%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는 병·의원의 증가세와도 연관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피부과 의원은 1,279개, 성형외과 의원은 954개로, 10년 동안 각각 35.3%, 22.8% 증가하여 전체 의원 증가율(19.5%)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사는 히알루론산 필러 이외에도 보툴리눔 독신, 리프팅실, 의료장비 등 에스테틱 분야에 특화된 제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해당 시장의 호조에 따라 동사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용성형 시장 확대에 힘입은 필러 시장, 안면필러에서 바디필러로 확장 예상

필러는 피부의 꺼진 부분을 볼륨감 있게 채워주는 주사제로 주름이나 파인 부분을 메워주는 보충제 역할을 위해 개발되었다. 최초의 필러는 얼굴 결손부위에 사용한 팔의 지방조직이었고, 액상 실리콘, 콜라겐 등을 지나 현재는 피부, 관절, 근육, 골격, 혈액 등 거의 모든 조직에 분포되어 있으며, 높은 생체적합성을 가진 히알루론산이 필러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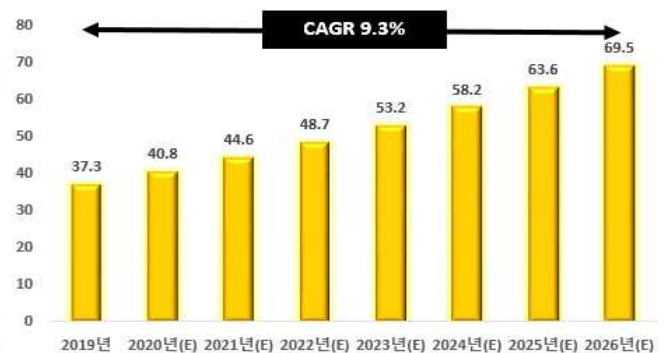
또한, 인구의 고령화, 시술 가격의 하락, 여성 노동인구의 증가 등 외모의 개선과 미적 성취감을 달성하기 위한 미용성형 시장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성형수술 대비 적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필러 역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히알루론산 필러 시장규모는 2019년 37.3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하였으며, 이후 연평균 성장률(CAGR)인 9.3%로 성장하여, 2026년 69.5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5] 국내 필러 시장규모 (단위: 백만 달러)



[그림 6] 글로벌 필러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출처: GBI Research(2019), NICE디앤비 재구성 *출처: Fortune Business Insights(2020), NICE디앤비 재구성

필러 시장의 경우, 세계적으로 Monophasic 필러의 대표적인 Juvederm과 Biphasic 필러의 Restylane로 양분되어 있으며, 국내 필러 시장의 경우, LG화학, 휴젤, 메디톡스, 휴메딕스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필러 제품의 품질이 상향평준화됨에 따라 기술은 성숙기를 맞이하였고,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가격/품질경쟁력을 갖춘 신규 제품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나, 필러 시장의 경우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업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가 중요한 산업의 특성상 해당 기업들의 시장지위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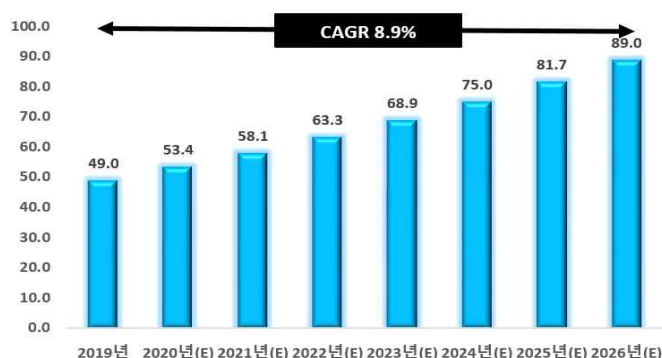
필러는 안면부 주름개선, 안면부, 손등 볼륨 회복 등 안면부에 대한 시술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국내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면부 외에 부위에 대한 사용 목적의 성형용 필러를 허가한 바가 없었다. 최근 들어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을 필두로 엉덩이, 가슴 등 신체 부위에 대한 시술 목적의 필러가 지속적으로 출시됨에 따라, 향후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여 국내 필러 시장 또한 다양한 부위로의 확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면필러에서 바디필러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동사는 바디필러 중 가슴 부분은 2019년 3분기에 예비임상 프로토콜을 제출하였으며, 2023년 출시를 목표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안면에 주입되는 필러 양이 약 3cc인 반면, 바디필러는 약 200cc가 주입되어 제품의 안정성과 몰딩감이 더욱 중요하게 강조되며, 동사는 낮은 가교율(MoD)로 안정성이 높으며 우수한 몰딩감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 과점 형태로 형성된 보툴리눔 독신 시장, 국내 기업들 침투 시도

보툴리눔 독신은 혐기성 세균인 보툴리눔 균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경 독소이며,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전달물질(아세틸콜린)의 방출을 막아 근육의 사용을 저하시키는 의약품이다. 초기에는 의약품으로 시작하였으나, 주름 개선 효과가 밝혀지고 2002년에 FDA로부터 미간주름(Glabellar Frown Lines)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은 이후 미용 목적으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그림 7] 글로벌 보툴리눔 독신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출처: GmInsights(2020), NICE디앤비 재구성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m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보툴리눔 독신 시장규모는 2019년 49.0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하였으며, 이후 연평균 성장률(CAGR)인 8.9%로 성장하여, 2026년 89.0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신증권 2019년 분석에 따르면, 보툴리눔 독신 시장은 유사 산업인 의약품, 화장품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글로벌 보툴리눔 독신 시장은 Allergan(미국), Ipsen(프랑스), Merz(독일) 등 소수 기업의 과점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이 중 보툴리눔 A형 제품은 Allergan의 보톡스, Ipsen의 디스포트, Merz의 제오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툴리눔 B형 제품은 현재까지 Solstice Neuroscience의 Myobloc이 유일하다. 또한, 보툴리눔 독신 시장은 보툴리눔 독신을 생산하는 군주가 고위험 병원체로 지정되어있고, 국제 생물무기금지 협약 상 군주의 국가 간 이동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원료 및 군주 확보가 어려워 해당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이 다른 산업들에 비해 높다. 이에 따라, 동사를 비롯한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등의 국내 기업들은 신제품 출시 및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침투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동사는 PHE로부터 보툴리눔 독신의 오리지널 군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미용/성형 시장에 적용되는 Type A 뿐만 아니라, 치료용 시장에 적용되는 Type B, E 군주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특수 감압건조 방식으로 원재료부터 제품 생산까지 1일 1Batch 생산이 가능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공장(연간 400만 vial)을 보유하고 있다.

[표 4] 주요 경쟁사 제품 현황 - 보툴리눔 A형

Allergan <보톡스>	Ipsen <디스포트>	Merz <제오민>

*출처: 각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Ⅲ. 기술분석

히알루론산 필러, 보툴리눔 독신, 리프팅실 관련 기술력 확보

동사는 낮은 가교율(MoD)로 필러의 안정성을 높였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전용 공장을 보유하여 생산능력도 갖추고 있다. 또한, Type A, B, E 생산균주를 도입하여 제품군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기술제휴 등을 통해 기술력 및 성장동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 낮은 가교율(MoD)로 안정성을 높인 동사의 히알루론산 필러 e.p.t.q

히알루론산 필러는 피부의 꺼진 부분을 볼륨감 있게 채워주는 주사제로, 볼륨이 부족한 피부 부위에 채워 넣어서 주름을 펴주는 보충제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주사제가 주름이나 근육의 일정기간 마비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반면에, 히알루론산 필러는 단순히 특정 부위를 매우거나 도톰하게 채워주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피부, 관절, 근육, 골격, 혈액 등 거의 모든 조직에 존재하며, 높은 생체적합성을 가지고 있어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약물전달시스템, 화장품, 상처치료 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

[표 5] 필러의 성분별 비교

원료	히알루론산	콜라겐	칼슘	PMMA
지속성	- 6-18개월	- 2년	- 1-2년	- 5년
재료	- 히알루론산	- 칼슘, 미네랄	- 동물성단백질	- 고농축콜라겐
장점	- 피부의 주성분을 사용하여 안정성이 높고 제거가 용이	- 지속시간이 비교적 길고, 점성과 탄성이 좋음	- 비교적 지속시간이 김	- 지속시간이 반영구적
단점	- 지속성이 짧은 편	- 제거가 어렵고, 피부가 얇은 사람은 시술 불가	- 제거가 어렵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음	- 제거가 어렵고, 완전 흡수가 불가능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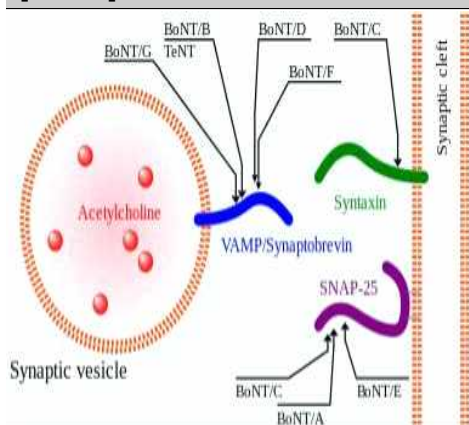
히알루론산 필러는 ROS(Reactive Oxygen Species)와 효소작용에 의한 분해(Enzymatic Degradation)로 그 수명이 피부에서는 24시간 미만이며, 다른 부위에서도 0.5일 ~ 수일 정도로 짧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명을 늘이기 위한 별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유체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지만, 탄성체와 같이 점탄성(Viscoelasticity)의 성질도 보유하고 있어 피부 내 주입 깊이, 체내 지속시간 및 강도 등에서 의미 있는 필러로 사용하려면 가교반응(Cross-Linking Reaction)을 거쳐야한다. 이때, 반응 조건들이 매우 예민할 뿐 아니라 반응속도 결정단계(Rate Determining Step)가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반응시간과 온도 등에서 오차가 있을 경우엔 원하는 물성을 재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를 위해, 제조사마다 다양한 가교제(Cross-Linking Agents)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제조사는 일반적으로 독성이 낮은 1,4-Butanediol Diglycidyl Ester(BDDE)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다량 함유하게 되면, 체내 면역반응에 의해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허가된 투여량 보다 더 넓은 부위에 많은 필러를 투여하고 있어

BDDE에 의한 독성우려는 항상 존재한다.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품 내 BDDE 투입량 감소가 가장 중요하다. 투입량은 필러의 교차결합 방법을 통해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가교변형율(Degree of Modification, MoD)로 나타낼 수 있다. 동사는 필러의 부작용과 안정성을 염두에 두고 가교제와 그 분해산물 등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기술(Cross-Linked HA) 개발을 완료하였다. 동사는 해당 기술을 통해 BDDE의 첨가량을 최소화하면서도 탄성이 높은 겔을 만들었으며, 응집력을 향상시켜 주입한 부위에서 유지가 잘되는 특징을 지니도록 하였다. 이로써, 동사는 지연성 부종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낮추었으며, 모노계열의 히알루론산 필러 중에서 가장 낮은 MoD 값을 나타내어 기존 제품들 대비 안전성을 높였다.

■ 특수 감압건조법과 보툴리눔 독신 오리지널 균주(Type A, B, E) 확보

[그림 8] 보툴리눔 독신 작용기전



보툴리눔 독신은 근육 이완작용을 이용해 눈가의 근육이 떨리는 안검경련을 치료하다가 눈가나 미간의 주름도 없어지는 것에 착안해서 오늘날 주름치료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보툴리눔 독신이 인체에 유입되면 신경세포의 말단 부분에 결합하여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근육수축 작용을 조절하는 아세틸콜린(Acetylcholine) 분비에 필수 작용을 하는 SNAP-25 단백질을 절단하여 아세틸콜린 분비를 감소시킴으로써 근육이 수축할 수 없게 한다. 보통, 작용시간은 노출된 후 보통 6~36시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7~14일에 최고의 효과를 나타낸다. 근육 이완상태는

*출처: 약학정보원, NICE디앤비 재구성 3~6개월정도 지속되고, 그 후 원상태로 돌아간다.

보툴리눔 균이 만드는 보툴리눔 독신은 현재 8종류(A~H형)가 있으며, 다양한 크기의 복합체가 존재한다. 현재, A형과 B형만 의약품으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시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복합체들 중 하나의 크기(900kDa)를 가지는 고순도의 보툴리눔 독소 생산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동사는 A형으로 한정된 주요 경쟁사들과 달리, 영국보건원으로부터 A, B, E 생산균주를 도입하여 제품군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 또한, 자체 개발한 특수 감압건조 방법을 사용하여 건조시간을 대폭 단축하였으며, 독소 단백질 변성도 최소화하였다. 2018년에는 보툴리눔 독신 전용 공장을 준공하여 연간 400만 vial의 생산능력도 갖추고 있다.

[표 6] 보툴리눔 독신 생산공정별 비교

구분	동결건조	감압건조	특수 감압건조
기업	- 대부분의 제조회사	- Allergan	- 동사
소요시간	- 18~28시간	- 5시간	- 2시간
특징	- 독소 단백질 조직 파괴로 효능 저하	- 독소 단백질 조직 파괴가 적어 효능 확보	- 건조시간 단축 - 독소 단백질 변성 최소화

*출처: 동사 IR자료, NICE디앤비 재구성

■ Dual Action 기술, 높은 인장강도와 내구성을 갖도록 하여 리프팅 효과 극대화

리프팅실은 상처 부위에 봉합하는 실을 이용하여 늘어진 볼과 턱 선, 눈가와 팔자 주름의 처진 피부를 당기고, 올려주는 기술로 미세한 주름부터 피부 속 깊은 주름까지 퍼지게 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실이 피부 속에 있는 동안 콜라겐을 재생성하여 피부 탄력을 높이고, 피부 내 혈류량의 증가로 피부톤을 밝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리프팅에 사용하는 실은 외과 수술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얼굴에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며, 최근에는 녹는 실로 미용 기술을 많이 하고 있다.

실의 재료로는 체내에서 녹는 성질을 갖는 PDO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 PLLA나 PCL 성분의 실이 사용된다. 녹는 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피부 속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사라짐으로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고, 안정성이 높으며, 실을 제거하는 2차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염증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하며, 분해되는 과정에서 실이 조기에 절단되어 리프팅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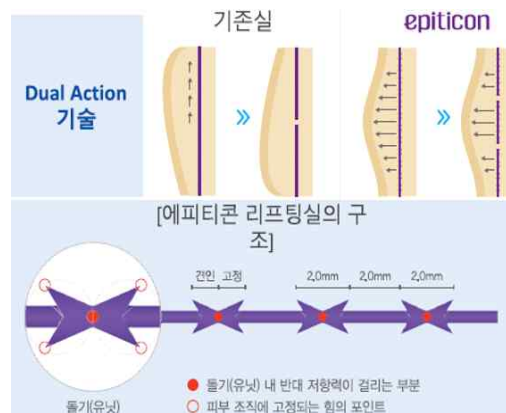
초기의 리프팅실은 돌기가 없는 모노 타입으로 피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됨에 따라 시술 후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고, 특히 성형수술과 같이 부위가 외부로 노출되는 경우에 매듭을 지은 부분이 외부로 표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 후, 2세대의 돌기형 모양이 나와 돌기로 인한 고정과 강한 리프팅에 의해 시술 효과가 높아졌으나, 커팅으로 만드는 돌기로 인해 실의 두께가 얇아져 지속시간의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표 7] 리프팅실의 세대별 특징

세대	성분	제조방법	방향성
1세대	- Polydioxanone(PDO)	- Mono type	- 코그 없음
2세대	- Polydioxanone(PDO)	- Cutting cog	- 양방향 코그형
3세대	- Polydioxanone(PDO) - Poly L-lactic acid(PLLA)	- Molding cog	- 양방향 코그형
4세대	- Polydioxanone(PDO) - Polycaprolactone(PCL) 중합체	- Molding cog	- Dual Action (견인과 고정 동시 역할)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NICE디앤비 재구성

[그림 9] 동사의 4세대 리프팅실



3세대 실의 경우, 돌기 자체를 열로 녹인 후 주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몰딩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조직을 억지로 위로 잡아당기듯이 돌기가 조직을 물도록 하여 지속시간을 개선하였다.

동사는 조직을 과하게 당겨놓을 필요가 없는 4세대 리프팅실을 개발하였다. 동사는 실의 돌기 모양을 개선하여 돌기(유닛)마다 4개의 고정포인트를 갖게 하였으며, 돌기(유닛)마다 견인과 고정의 Dual Action 기술을 적용하여 높은 인장강도와 내구성을 지니게 하였으며 강력한 고정효과와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를

*출처: 동사 IR자료, NICE디앤비 재구성 얻도록 만들었다.

■ 세분화된 연구개발 수행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동사는 제품의 성능 향상, 포트폴리오 강화 등으로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출액 대비 평균 2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개발총괄 산하 기업부설연구소와 개발부서를 두고, 하위 조직으로 5개팀(연구기획, 고분자, 바이오, 개발, 임상)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트렌드 변화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충북대학교 등과 기술제휴 계약을 맺고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기술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동사는 2021년 2월 키프리스(KIPRIS) 기준으로, 총 5건의 등록 특허와 4건의 출원 특허를 보유하여 기술 권리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특허권 외에도 브랜드 권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47건의 상표권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8] 기술연구소 분야별 업무

분야	주요 수행 업무
연구기획	○ 보툴리눔 독소 CTD 작성, 신사업, 국책 과제, 학술 및 교육 등을 기획
고분자	○ 히알루론산 필러의 공정개발, 적응증 확대를 위한 신제품 개발 ○ 다양한 생체재료를 이용한 신제품 개발, 제품 시험법 확립
바이오	○ 보툴리눔 독소 생산 공정 개발, 타입별 신제품 개발 ○ 고순도 독소제제 개발, 제형 개발(액상 및 마이크로 니들) 및 제품 안정화제 발굴
개발/임상	○ 피부/미용 관련 신제품 개발 ○ 의약품/의료기기 글로벌 인허가, 임상시험 기획 및 전략 수립 ○ 허가 취득 후 약물감시(PV) 및 시판후조사(PMS) 업무 관리

*출처: 동사 홈페이지 및 분기보고서(2020.09), NICE디앤비 재구성

■ K-뷰티 관련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선점 및 경쟁심화에 따른 대응 전략 필요

[그림 10] SWOT 분석



IV. 재무분석

필러의 해외 수주 확대 및 보틀리눔 특신의 수출 허가 취득으로 실적 증가세 지속

동사는 히알루론산 필러, 보틀리눔 특신, 리프팅실, 의료장비, 화장품 등 에스테틱 분야에 특화된 제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보틀리눔 특신 수출을 통한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보틀리눔 특신 출시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매출외형 확대 추세

2014년 휴먼메디칼을 합병하고, 2015년 히알루론산 필러 전용 공장을 용인에 준공함으로써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 진출한 동사는 히알루론산 필러 이외에도 보틀리눔 특신, 리프팅실, 의료장비 등 에스테틱 분야에 특화된 제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2019년 매출액 기준 의료기기(히알루론산 필러 등) 75.8%, 의료장비(레이저수술기 등) 8.2%, 기타(리프팅실 등) 16.7%의 매출 비중을 각각 기록하며, 의료기기(히알루론산 필러 등) 판매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보틀리눔 특신 출시로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면서 국내·외 수출 물량이 증가하여 최근 매출액이 2017년 81.7억 원에서 2018년 112.1억 원, 2019년 133.0억 원으로 매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동사는 안면필러 제품 이외에도 향후 바디필러 등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유럽 소재의 국립기관으로부터 확보한 균주를 이용해 자체 고순도 보틀리눔 특신 생산 개발을 완료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20년 6월 수출용에 한해 품목허가를 받아 해외진출이 가능해진 점 등을 고려 시, 향후 실적 확대가 기대되는 바이다.

[표 9]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별도기준)

항목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3분기	2020년 3분기
매출액	81.7	112.1	133.0	93.0	117.7
매출액증가율(%)	-35.3	37.2	18.6	-	26.6
영업이익	-40.0	-45.5	-107.3	-70.7	-69.7
영업이익률(%)	-49.0	-40.6	-80.7	-76.0	-59.2
순이익	-55.8	-157.5	-147.2	-96.5	-95.0
순이익률(%)	-68.3	-140.5	-110.7	-103.8	-80.7
부채총계	151.8	563.3	283.5	-	269.3
자본총계	37.9	-50.4	339.4	-	405.2
총자산	189.7	512.9	622.9	-	674.6
유동비율(%)	64.8	44.3	98.5	-	120.6
부채비율(%)	400.5	-1,116.7	83.5	-	66.5
자기자본비율(%)	20.0	-9.8	54.5	-	60.1
영업현금흐름	-15.8	-59.3	-81.1	-16.9	3.1
투자현금흐름	-97.4	-214.1	-155.8	-64.3	54.0
재무현금흐름	56.4	326.6	206.6	29.0	39.9
기말 현금	7.0	60.1	30.3	8.4	126.4

※ 분기: 누적 실적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 성장동력은 확보하였으나, 적자수익 구조 탈피 여부 주목 필요

2017년 81.7억 원(yoy -35.3%), 2018년 112.1억 원(yoy 37.2%), 2019년 133.0억 원(yoy 18.6%)의 매출액을 각각 기록하며 최근 2개년 매출 외형이 증가세를 나타냈다. e.p.t.q라는 브랜드로 해외 16개국에 필터를 수출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필터 수요의 확대가 실적 호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2020년 2월 기준 해외 판매 대행업체들과 향후 3년간 1,196억 원의 필터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6월 기준 보틀리눔 특신의 수출 허가가 이뤄진 바, 중장기적 성장 동력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적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의 사업 특성 상, 연구개발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개년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은 2017년 17억 원(매출액 대비 20.8%), 2018년 37억 원(매출액 대비 33.2%), 2019년 78억 원(매출액 대비 58.7%)으로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아울러 국내외의 높은 경쟁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2019년 인력 충원 및 연구개발비용의 증가 등으로 영업손실 107억 원, 매출액영업이익률 -80.7%를 기록하며 적자 수익구조가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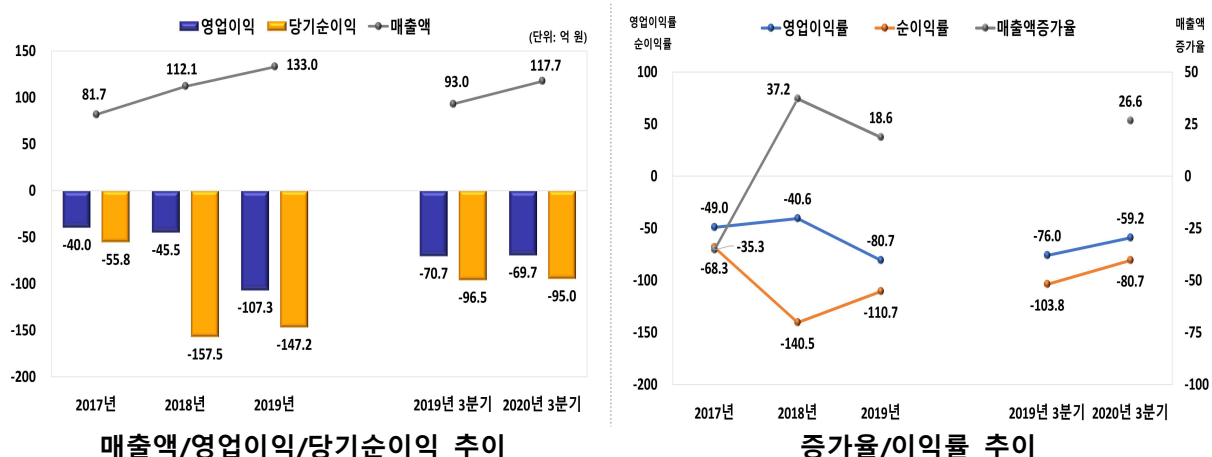
한편, 최근 3개년 금융원가, 지분법손실 등의 발생으로 인해 영업외수지는 적자를 지속함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존하지 못하고 순손실 147억 원, 매출액순이익률 -110.7%를 기록하였다. 필터의 해외 수주가 확대된 가운데, 보틀리눔 특신의 수출 허가 취득 경쟁환경의 변화로 중국 수출 가능성이 대두된 바, 외형 성장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 여부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 2020년 3분기 전년동기 대비 매출 증가, 적자 수익성 지속

2020년 하반기 필터 수요의 증가, 보틀리눔 특신 출하 등으로 2020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18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93억 원 대비 27% 증가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다만, 과중한 연구개발비 및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영업손실 70억 원, 순손실 95억 원의 적자 수익성을 지속하였다.

[그림 11]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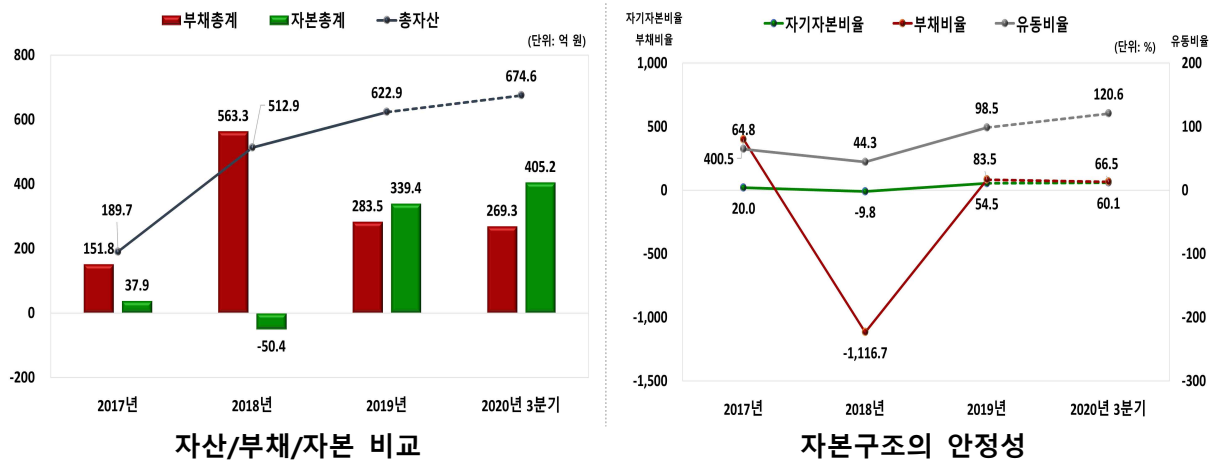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K-IFRS 별도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그림 12]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별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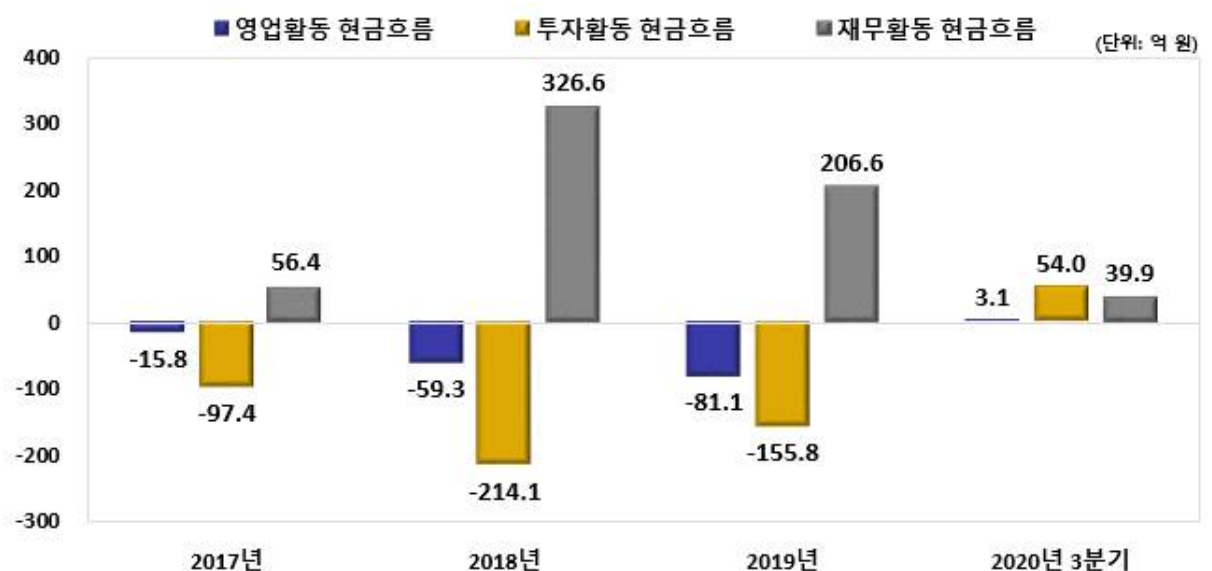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 최근 3개년 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 구조 지속

동사는 적자 수익 지속으로 인해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최근 3개년 음(-)의 값을 지속하였고 그 규모는 2017년 -16억 원, 2018년 -59억 원, 2019년 -81억 원을 기록했다. 최근 3개년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유형자산의 취득 등으로 인해 투자활동현금흐름 또한 음(-)의 값을 지속한 가운데, 동사는 투자활동과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단기, 장기차입금의 증가, 유상증자의 증가 등의 재무활동을 통해 유입된 현금으로 충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한편, 2019년 기초현금 60억 원에서 기말현금 30억 원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림 13] 동사 현금흐름의 템화

(단위: 억 원, %, K-IFRS 별도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중국, 브라질 등과 보툴리눔 독신 공급계약 체결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동사는 시설증설에 투자하여 필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보툴리눔 독신 진출을 위해 중국, 브라질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장 본격화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 보툴리눔 독신 진출을 위해 중국과 5,500억 원 규모의 공급·라이센싱 계약 체결

동사는 중국 시장에 보툴리눔 독신 진출을 위해 지난해 8월 중국의 화동닝보와 150억 규모의 선급 로열티 및 5,500억 원 규모의 공급 및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계약을 통해 화동닝보는 중국 시판 허가를 위한 현지 임상을 시작하고 2024년에 허가를 취득을 목표하고, 이후 10년간 최소 5,500억 원 규모의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 동사는 화동닝보사의 실사를 통해 KGMP 취득을 통한 생산 시설 및 품질 관리 수준, 보유한 군주 출처에 대한 이슈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필러 등 생산설비를 위해 약 74억 원 규모의 시설투자 결정

동사는 유럽 시장에서 급증하는 필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약 74억 원 규모의 시설증설에 투자를 결정하였다. 해당 금액은 2019년 말 자기자본의 21%에 해당되며, 기간은 올해 9월까지이다. 동사는 이번 신규투자를 통해 연간 300만 개의 필러 추가생산이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공급망을 넓혀나갈 계획으로 확인된다.

■ 브라질 FUNSHINE Inc과 1,105억 원 규모의 보툴리눔 독신 공급계약 체결

동사는 지난해 2월 1,105억 원 규모의 보툴리눔 독신을 브라질 FUNSHINE Inc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기간은 향후 10년이며, 2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공급량을 56억 원에서 204억 원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소 구매약정에 따라 최소 구매수량은 판매예측 금액의 80%이며, 상호 동의하에 제품 등록 후 1년 동안은 최소구매 수량을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동사의 제품(더 독신주 100U)은 지난 해 6월 수출용 품목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 수출 시작에 따른 보툴리눔 독신 성장 본격화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동사가 속한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수준이 매우 높은 산업이며, 동사는 비교적 후발주자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비용 발생, 신규 인력의 채용 등으로 인해 최근 3개년 적자 수익성을 지속하는 등 실적 확대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 제품의 경우, 질병과 질환 치료의 목적보다 성형, 미용 목적의 사용 빈도가 높으므로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으나, 오히려 경기 침체기에 소비자들이 고가의 성형시술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필터 기술을 선호하여, 경기가 어려울 때도 매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얼굴용 주사제 기술은 영구적이지 않고, 지속기간이 제한적인 바, 재구매 효과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필터 시장의 트렌드 변화로 안면필터에서 바디필터로 확장되어 필터 사용량이 확대될 것을 전망하고 있어, 동사 또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보툴리눔 독신의 오리지널 균주를 영국공중보건원으로부터 정식 분양받아, 이를 활용한 신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한화 투자증권	Not Rated	—	2020.08.10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 ■ 하반기 해외 필터 수요 증가 속에 보툴리눔 독신 수출이 본격화되며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됨. ■ 최근 보툴리눔 독신 균주 이슈도 오리지널 균주를 보유한 동사 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하나 금융투자	Not Rated	—	2020.10.22
	■ 주력제품인 히알루론산 필터는 국내에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 받음. ■ 보툴리눔 독신 부문은 오리지널 균주를 영국공중보건원으로부터 정식 분양받아 국내 유일 Type A, B, E를 보유하고 있음.		